

## 학문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을 위한 초분과적 기획과 문화연구

강내희\*

이 글은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학계에서 학문 간 융·복합 담론과 함께 자주 논의되고 있는 '학문 간 통섭'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해당한다. 학문 통섭 담론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지만 윌슨의 통섭론이 자연과학 중심이라는 점 때문에 추구하는 지식의 성격이나 그 가치 지향이 자연과학과는 크게 다른 학문 분야, 특히 인문학으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 논문은 환원주의적 통섭에 대한 인문학의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인문학 다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분과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려면 학문 간 통섭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때 요청되는 통섭은 비환원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한 모델을 '분과들 너머'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바사라브 니콜레스쿠의 '초분과성' 기획에서 찾고, 인문학 분야에서 비슷한 통섭 작업을 해온 사례로서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출되어 오늘날까지 진보적 지적 기획으로 작용해온 '문화연구' 전통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연구는 여기서 과학 분야에서의 '복잡성 연구'와 함께 현재 지배적인 지식생산 구도를 뒤흔들며 학문 간 비환원주의적 통섭을 위한 초분과적인 진보적 기획으로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최근 문화연구와 '현존하는 제3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출한 슬라보이 지젝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주제어: 학문의 통섭, 간분과성, 초분과성, 문화연구, 복잡성 연구, 제3의 문화, 역동일시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화연구학과 교수

## 1. 서언

근래에 들어와서 국내에 새로운 지식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 ‘융·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공적 지식생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학문의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대거 발주시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는 경향은 이를 주도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은 물론이고, 연구재단이 2007년부터 인문한국(HK)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인문학계, 2010년에 사회과학한국(SSK) 사업을 시작한 사회과학계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이런 흐름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좀 더 전에 떠오른 학문정책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 듯싶다. 미국에서는 과학재단(NSF)이 2002년 나노(Nano), 생명과학(Bio), 정보과학(Info), 인지과학(Cogno)을 포괄한 NBIC라는 이름의 과학진흥 정책을 제출한 바 있고, 캐나다는 이를 ‘혁신적 파괴기술’(Innovative Disruption Technologies, IDT)로 재구성한 틀을, 유럽공동체에서는 미국의 NBIC 틀에 유럽의 특성을 가미한 ‘유럽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 기술’(Convergent Technology for European Knowledge Society, CTEKS)을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정모, 2004). 구미의 이런 동향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엘렉트로니카 센터(1980), 미국 뉴멕시코의 산타페연구소(1984), 미국의 MIT 미디어랩(1985)과 독일 카를스루에의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1997), 미국 카네기멜론대의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1997) 등 다수의 대학 또는 민간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기존의 근대적 지식생산 체계인 분과학문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려 한 데서 찾을 수도 있다(심광현, 2009: 211).

오늘 학문 간 융복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다시피 과학기술 담론이다. NBIC나 IDT, CTEKS, 그리고 이들 정책과 비슷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GNR이나 GRAIN 개념 등은 모두 과학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론과학보다는 응용

과학, 기술과학에 편중되어 있다.<sup>1)</sup> 이런 점은 오늘 과학이 지식을 위한 지식의 생산보다는 리오타르(1992)가 일찍이 언급한 '수행성' 중심의 지식 생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것은 학문 융복합 담론이 "지식생산 메커니즘의 실제적인 물리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의 융복합 담론은 2000년대 초반에 유포되어 관심을 끌었으나 '수사학적' 성격이 강했던 '지식사회' 담론이나 '신지식인' 담론과는 다르다. 후자의 담론이 "새로운 지식생산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당위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학문 간 융·복합 담론은 이미 변화된 지식생산의 하부구조에 적응할 수 있게 학문 편제와 지식생산의 상부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심광현, 2009: 199-200). 이런 진단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학문의 융·복합이 필수적인 지식생산 환경을 맞이한 셈이 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학문의 '융복합'보다는 '통섭' 문제다. 융복합 담론과 통섭 담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전자의 경우는 학문이론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등장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에서 융복합 담론은 연구재단에서 먼저 학문 융복합에 기반을 둔 일정한 수의 연구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연구자들이 이에 부응하여 융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학문 외적 요인이 그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융복합 논의가 연구재단 등 정부 기관들에서 내놓는 사업 안내 문건들, 연구재단의 지원에 생존을 의존하는 대학 연구소 등이 생산하는 정책 및 기획 문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에 통섭 담론은 기본적으로 학문 내적인 논의, 학문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는 1840년에 '통섭'(consilience)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사가였던 윌리엄 휴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20세기 말에 그 말을 다시 꺼

1) 'GNR'은 Genetics(유전공학), Nanotechnology(나노기술), Robotics(로봇공학)의 합성어이고, GRAIN은 Nanotechnology, Robotics, Genetics,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합성어다. GNR이 향후 기술과학의 발전 방향이 된다는 견해는 레이 커즈와일(2005), GRAIN 약성어는 더글러스 멀홀(Mulhall, 2002)이 제시한 것이다. GNR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 문화적 함의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문화/과학》 57호(2009 봄) 특집 참조.

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휴얼이 오귀스트 콩트가 내세운 연역법에 입각한 실증주의의 대안으로 귀납법에 바탕을 둔 통섭 개념을 제안했다면(Fuller, 2001), 윌슨은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등 모든 학문들을 관통하는 지식의 통합을 제안한다(윌슨, 2005)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학문이론적 관점에서 통섭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학문이론이 학문정책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다. 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한 학문정책도 학문이론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융복합 담론이 통섭 담론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 고려를 우선시할 때에는 학문 내적 관점이나 쟁점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학문이론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고, 실제 학문정책에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반면에 통섭 담론은 지식생산의 문제를 학문 내적 논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이론적 성격이 더 크다고 하겠다.<sup>2)</sup>

학문의 통섭은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문들 간의 관계 맺기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한다. 사실 국내에서도 ‘통섭’ 담론이 최근에 등장하기 전에 학문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문화연구의 경우 근대학문의 지배적 편제라고 할 수 있는 분과학문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왔다고 할 수 있다(강내희, 1998).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대학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대학들이 ‘문화’ 자가 들어가는 학부 학과들을 새로 만들고, 몇몇 대학들이 ‘문화학’ 또는 ‘문화연구’ 이름을 단 대학원 협동과정을 만든 것도 국내에 문화연구가 수용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3)</sup> 이 글에서 나는 통섭 담론

2) 그렇다고 통섭 담론과 융복합 담론의 관계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학문 간 관계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섭 담론은 학문이 공적인 지식생산 체계인 대학제도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당대의 정치경제학적 조건과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융복합 담론의 확산이라고 하는 학문공학적 국면 조성과는 무관할 수가 없다.

3) 물론 국내 대학들이 ‘문화’ 학과들을 대거 만든 것은 문화연구가 제기한 분과학문 비판에 대한 보수적 대응에 해당한다. ‘문화연구’는 반분과적 성격이 강한데 문화연구 학과를 만든 것은 문화연구의 분과 중심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존의 (‘돈이 되지 않는’) 분과 폐기와 새 분과 수립 전략으로 역이용한 셈이다.

을 중심으로 지식생산의 통합 제안이 제기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 쟁점들을 비판적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 다음, 통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 2. 통섭과 '제3의 문화': 인문학계의 반응

학문 통섭과 관련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제법 많이 진행된 편이다. 월슨이 1998년에 쓴 《통섭 — 지식의 대통합》이 2005년에 번역된 뒤로 통섭 논의가 크게 촉발된 것이다.<sup>4)</sup> 그런데 오늘 '통섭'은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고, 그것의 현실태라 할 학문 융복합 프로젝트의 만발에도 불구하고 학계 전반으로부터 썩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월슨의 통섭 제안은 지식생산의 '수직적 통합'(Tooby and Cosmides, 1992)이라고 할 수 있다. 슬링거랜드에 따르면 수직적 통합으로서의 통섭은 기본적으로 환원적인 지식생산에 해당한다. “신경과학은 유기화학에 의존하고, 유기화학은 그것대로 물리화학에, 물리화학은 그것대로 물리학에 의존한다. 이 의존의 본질은 하위 설명 차원이 고위 차원에 중요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물리화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어긋나는 유기화학의 가정은 즉각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물리화학에 대한 전적인 재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수직적 통합 뒤에 작용하는 논지는 인문학이 다루는 설명 수준들이 이 설명의 위계에 속한 자신들의 본래 위치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전반적 '통섭'의 강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lingerland, 2008: 267). 그러나 이와 같은 통섭 제안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도로 만만찮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4) 2009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학문 간 경계를 넘어 — 통합적 학문 연구의 가능성과 전망' 학술대회, 2009년 여름에 5회에 걸쳐 진행된 4개 대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가 2009년에는 '현단계 과학기술의 변동과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주제로, 2010년에는 '학문의 융복합을 말한다 — 제3의 문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매년 6회씩 공동워크숍을 주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내 통섭 논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심광현(2009: 35-36) 참조.

통섭에 대해 가장 강렬하게 반발한 쪽은 인문학계다. 학문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 작업을 자연과학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통섭론이라면 인문학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 중심의 통섭론은 학문의 목적을 한편으로 사실 및 진리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치 추구로 두고 결국 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근대적 학문의 과학주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계체계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장기 16세기 동안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리’와 ‘가치’의 구분과 분리에 근거한 앞의 두 가지 방식이 제도화되었다(Lee, 2004).<sup>5)</sup> 베이컨의 귀납법과 경험주의, 데카르트의 연역법과 합리주의가 16세기에 뉴턴에 의해 종합됨으로써 과학에서 지배적 이론적 접근 및 방법론적 실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 또는 진리 추구 중심의 자연과학이 학문의 모델로 정립되는 과정으로서, 19세기 말 사회과학이 한편으로 사회주의, 다른 한편으로 보수주의에서 나오는 가치담지적 정치적 요구를 중재하고 관리하는 자유주의의 개혁 도구로 수용되면서 가치중립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물론 이런 변화 속에서도 인문학은 가치담지적 성격을 고수해왔지만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까지 과학주의로 경도된 마당에 인문학이 지배적 흐름에 맞설 대단한 힘을 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sup>6)</sup> 오늘 자연과학 중심의 통섭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근대 학문의 큰 흐름이 그대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통섭 제안에 대해 인문학자들이 무관심 아니면 적대감을 드러내고, 최근에 ‘통섭’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드워드 윌슨의 “작업이 1970년대 이래 인문학자들 사이에 그토록 강렬하고 지속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Slingerland and Collard, in press: 2)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7)</sup>

5) 이하 내용은 리처드 리의 글(Lee 2004)을 요약한 것이다.

6)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문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랭크와 게이블러에 따르면 인문학의 위축은 한편으로는 학문의 기본 세 분야들(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의 중요성 재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학문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계가 있다 (Frank and Gabler, 2006 참조).

7) 이 글에서의 인용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PDF 파일의 쪽수를 가리킨다(2010년 10월 6일 내려 받음). [http://faculty.arts.ubc.ca/eslingerland/pdfs/CreatingConsilience\\_Introduction\\_v12.pdf](http://faculty.arts.ubc.ca/eslingerland/pdfs/CreatingConsilience_Introduction_v12.pdf).

인문학자들의 통섭에 대한 이런 반발은 오래 전에 C. P. 스노우가 '두 문화'라고 부른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다시피 1950년대 말 스노우는 당시 지식인 사회가 상호이해와 소통의 단절로 '문학적' 문화와 '과학적' 문화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스노우가 '두 문화'를 문제라고 본 것은 그 중 하나를 대변하는 문학적 지식인과 다른 하나를 대변하는 과학자들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고, 또 인문학 중심의 지식인 사회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언어도단의 무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물론 스노우의 입장은 과학적 문화와 문학적 문화의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오늘 인문학자들이 통섭 제안에 대해 대부분 거의 자동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두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사실 최근 인문학자들의 이런 태도는 상황 반전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스노우가 자신의 문화 진단에서 더 큰 문제로 강조한 것은 인문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그는 "지식인, 특히 문학적 지식인은 말하자면 타고난 러다이트들"이라며, "거의 모든 곳에서 ...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스노우, 1996: 34, 37) 있다고 꼬집고, 반면에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지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의 문화는 많은 점에서 정확하며 훌륭한 것이다"(스노우, 1996: 25)라고 말한다. 과학에 대해 무지한 문학적 지식인들이 지식인의 표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 스노우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오늘은 그와는 아주 다른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의 반전은 '제3의 문화'가 오늘 지배적 문화 현상으로 등장한 데서 확인된다. 스노우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두 문화와 과학혁명」을 발표하고 4년 뒤 작성한 「두 문화: 그 후의 고찰」에서 '제3의 문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바 있다. 그가 이 문화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는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과학적 문화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스노우, 1996: 86)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제3의 문화가 두 문화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한 모습일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존 브로크만에 따르면 이런 문화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물론 오늘의 제3 문화는 "스노우가 예언했던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브로크만, 1996: 2). 스노우가 기대한 제3의 문화가 문학적 지식인과 과학적 지식인, 다시 말해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그 안에서 서로 진지

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브로크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제3의 문화는 “그동안 소위 ‘과학’이라 불리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중문화’로 자리잡”(브로크만, 1996: 3)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인문적 역능을 갖춘 과학자들인 것이다. 브로크만은 이들을 ‘과학적 사고로 무장한 새로운 인문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인문주의자는 대부분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브로크만은 “이 새로운 [제3의] 문화는 경험세계에 토대를 둔 이들 과학자들과 그 밖의 사상가들로 이루어져”(브로크만, 2006: 10) 있다고 하지만 그가 소개하는 제3의 문화인들 가운데 ‘그 밖의 사상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매우 낮고 대부분이 전문과학자들이다.<sup>8)</sup>

오늘 제3의 문화가 출현했지만 이 현상이 기본적으로 과학 중심인 것은 브로크만이 소개하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과학자들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제이 클레이턴에 따르면 “두 문화가 또 다시 융합하고 있다. 과학, 기술, 대중문화, 그리고 인문학이라 불리는 문학적 지적 삶의 영역들 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Clayton, 2002: 809). 클레이턴이 이 관계 변화를 체현하는 사례로 드는 것은 컴퓨터광(狂, geek)이다. 그는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테크노키드를 관찰한 존 카츠의 연구(Katz, 2000)를 소개하며,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읽는 10대 컴퓨터 해커’를 드문 유형의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와 같은 중흥이 새 천년을 맞는 미국사회 주요 부문들의 징표”(Clayton, 2002: 807)라고 말한다. 디킨스를 읽는 10대 해커가 있다는 것은 테크노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문학적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통념을 뒤

8) 브로크만은 《제3의 문화》에서는 스티븐 제이 굴드, 머리 겔-만, 다니엘 데닛, 리처드 도킨스, 스티브 존스, 폴 데이비스, 니콜라스 험프리, W. 다니엘 힐리스, 로저 쉥크, J. 도인 파머, 리스 몰린을,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에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스티븐 핑커, 헬리나 크로닌, 앤디 클라크, 마크 하우스저, 리처드 랭검, 대니얼 데닛, 스티븐 코슬린, 조던 폴락, 데이비드 젤렌터, 로드니 브룩스, 한스 모라벡, 데이비드 도이치, 마빈 민스키, 레이 커즈와일, 제이런 러니어, 세스 로이드, 앨런 구스, 폴 슈타인하르트, 리자 랜들, 리스몰린, 마틴 리스를 제3의 문화의 대표적 지식인들로 소개한다. 보다시피 이들은 대부분이 과학자들이며, 스티븐 굴드 정도를 제외하면 진보적 성향을 띤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런 점과 함께 커즈와일, 모라벡 등이 적극적 인공지능주의자임을 고려하면 브로크만이 말하는 ‘제3의 문화’는 친자본적 과학 기술 중심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집는 셈인데, 클레이튼에 따르면, 전통적인 문학적 교양과 첨단기술 능력의 결합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기술, 인문학, 과학, 예술 간의 문화 융합이 요구되면서 나타나는 사례로서 테크노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은 별로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클레이튼은 이런 두 문화 융합 현상을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브로크만과는 대비되는 태도를 취한다. 그는 두 문화 분리를 종결짓는 방안에는 종합, 체계모니, 제휴의 세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종합을 월슨이 제시한 통섭과 같은 부류라고 하며 종합은 유토피아적 글쓰기로서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말한다(Clayton, 2002: 823). “오늘 일어나는 융합은 일상 직종에서 자신들과 무관한 영역들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직면해야 하는 정보 경제 속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융합이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에서는 ‘통합’만이 아니라 ‘탈구현상’도 적잖이 작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Clayton, 2002: 811). 월슨의 통섭론과 같은 유토피아적 미래학자의 글쓰기는 이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클레이튼은 두 문화 분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과학이 모든 다른 형태의 담론에 대한 실질적 체계모니를 달성했기 때문”이라 보는 견해를 소개하고, 여기서 “문학 및 다른 인문학은 세계에 대한 타당한 관점을 생산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삶의 실제 업무에서 무의미해졌다”고 한다. “과학이 자동으로 이기고 있다”(Clayton, 2002: 823)는 것이다. 클레이튼은 그래서 선호하는 문화 분리의 종결 방식으로 ‘제휴’를 택한다. “분과들 간의 제휴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전술 팀들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전문역량들의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융합을 위한 바람직한 구조로 보인다”(Clayton, 2002: 824)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클레이튼은 이 제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제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전략에는 기회만큼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후퇴가 아니라 비판적 개입이 한때 휴머니즘적 가치라고 부르던 것에 대한 최선의 희망”(Clayton, 2002: 825)이라고 결론짓는다.

브로크만과 클레이튼이 보여주고 있듯이 제3의 문화가 등장했다면 그것은 테크노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문화 상황의 반영이다. 인문학계에서 월슨의 통섭 제

안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은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문화가 지닌 과학 중심적 경향에 대한 반작용일 것이 분명하다. 인문학자들의 그런 태도는 스노우가 ‘두 문화’ 문제를 지적했을 때 스노우의 관점을 강렬하게 반박하고 나섰던 영국의 문학비평가 F. R. 리비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비스는 1962년에 행한 강연에서 두 문화 문제를 거론한 스노우의 강연을 바로 지목하며, 스노우의 주장은 과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감행한 바 있는데(Leavis, 1962), 브로크만의 진단처럼 제3의 문화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하면 리비스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오늘 인문학계가 통섭에 대해 시답지 않은 태도를 드러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렇다고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서로 간극을 유지하며 두 문화를 지키자는 태도 역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통섭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어떤 통섭이냐, 즉 어떤 학문 간 관계 맺기나다.

### 3. 통섭, 간분과성, 초분과성

사실 통섭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인문학자들도 과학과의 관계 맺기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통섭은 모든 지식을 자연과학의 진리 모델에 종속시키므로 인문학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지식생산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교류, 대화, 소통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인문학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이남인은 “월슨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문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하며 양자를 ‘융합선 없이’ 완벽하게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남인, 2009: 27)는 관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하면서도, 양자 간의 관계는 ‘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학제적 연구는 여기서 “현대에 접어들면서 파편화되어 결국 현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이남인, 2009: 29)로 제시된다. 서로 다른 학문 영역들 또는 분과들 간의 “진정한 대화와 소통에 토대”를 둔 학문 간 관계 맺기가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또는 간분과성(interdisciplinarity) 기획이라면 그런 것을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리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속하는 어떤 분과학문도 그 존재이유를 부정할 수가 없다면, 따라서 어느 한 분과의 이름으로 다른 분과를 강제로 통합할 수 없다면, 분과들 간의 관계 맺기가 학제적 연구 이상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워 보인다. 학문 간 대화와 소통을 전제하는 한 학제적 연구 또는 간분과성은 각 분과의 고유한 목소리를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문공동체에서 분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분과성에 입각한 연구가 오늘 학문 수행의 최선의 방안인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다음은 간분과성에 대한 알튀세르의 지적이다. “이[간분과성] 신화는 인간과학에서도 일반적으로도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언어학과 문학사는 끊임없이 문학이든 과학이든 현존 분과학문들로부터 관념들, 방법들, 절차들을 빌려온다.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학제 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절충적 관행이다. 이웃이라면 누구도 잊지 않고 모두 초대하지만 우리는 결코 알게 되지 못한다. 아무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라운드테이블’의 관행은 그것이 대위법과 주요부를 구성하는 간분과성의 장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대동하기 마련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식한 자들을 모두 끌어 모으는 것으로 족하다는 공식에 담겨 있다. 과학은 무식한 자들의 모임에서 떠오른다는 말이다”(Althusser, 1990: 97. 강조는 원문). 간분과성 또는 학제적 연구가 ‘무식한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런 식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남인이 기대하듯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한다면 학제적 연구가 ‘무식한 자들의 모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제적 연구가 자국 입장만을 대변하려드는 외교관들이 모인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 학제적 연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통섭과 그것의 현실태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문화’가 지닌 과학중심주의, 그리고 이것이 지닌 단순 환원주의는 당연히 배격해야 하겠지만, 통섭까지도 포함하여 학문 간 관계 맺기의 또 다른 방도는 없겠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통섭 논의 가운데 통섭이 지닌 환원주의를 인정하면서 이

환원주의를 나쁜 환원주의와 좋은 환원주의로 나누어, 후자에 입각한 통섭을 추구 하자는 슬링거랜드의 제안이 눈에 띈다(Slingerland, 2008; Slingerland and Collard, in press). 슬링거랜드에 따르면 학문과 지식생산에서 환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아무리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인문학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추상화를 하지 않고서는 학문 세계에서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임을 전제 하면 환원은 학문세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그는 인문학적 경험에 대한 지식생산도 추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과학이 인문학의 기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동일한 자연세계, 물질세계에 속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사실들도 과학적 추상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인문학적 경험의 독특함은 독특함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인다. 그렇다고 과학적 추상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슬링거랜드는 인문학적 경험의 독특함도 인류가 자연의 일부로서 진화해온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즉 자연과학적 추상화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떠오름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떠오름은 인간이 자연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유적 존재로서의 종별성을 갖게 하는 자연적 현상으로서, 소설이나 시, 음악 등의 예술, 선악과 책임감 등의 도덕적 감정, 영성과 같은 종교적 체험 등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문제들, 즉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자신을 구분 하는 근거로 삼아온 특징이나 화두, 쟁점은 그로 인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섭’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슬링거랜드가 자신은 월슨 식의 환원주의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떠오름이 한편으로는 자연의 질서에 속하는 진화 현상이면서도 그로 인해 인간 생명체가 어떤 불귀점을 넘어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통섭은 인문학의 고유한 작업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통섭이 인간적 삶의 모든 측면을 유전인자나 생물학적 본능과 같은 어떤 하위 차원의 공통분모로 환원시킨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선 통섭의 틀 안에는 배타적으로 특권적인 단일한 설명의 차원이 없다. 통섭 틀 안의 어떤 작업은 인간의 삶의 특질들을 유전인자와 같은 하위 차원의 현상들로 설명하려 하지만 다른 작업은 더 고차원의 설명력을 지닌 현상들을 활용한다”(Slingerland and Collard, in press: 19)는 것이다.

슬링거랜드가 제안하는 통섭의 방식은 월슨이 제안하는 것과는 달리 학제적 연구의 간분과성을 추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과

학이 단순히 인문학에 한계를 지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문학에서의 작업이 과학적 가정들의 재공식화를 규정할 수도 있다”(Slingerland and Collard, in press: 21). 이런 사실은 인문학적 쟁점이나 문제의식을 무조건 과학적 원리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는 것과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서로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지구 나이와 관련하여 찰스 다윈과 윌리엄 켈빈 사이에 입장 차이가 벌어졌을 때, 켈빈은 물리학의 관점에서, 다윈은 생물학의 관점에서 그 나이를 추정했는데, 에너지 자원과 열역학 법칙들에 의거하여 지구 나이를 계산한 켈빈보다 생명체의 진화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다윈이 제시한 지구 나이가 10배나 넘게 나오자 하위 차원의 더 근본적 학문인 물리학과 상위 차원의 생물학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으나, 슬링거랜드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은 ‘심란해한’ 것이었다. 즉 두 사람은 양자의 입장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다시 말해 물리학과 생물학 간의 통섭이 방사능, 즉 켈빈이 몰랐던 에너지 자원의 발견으로 다시 한 번 이루어질 때까지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이다. 슬링거랜드는 이 일화를 “고차원의 설명 즉 생물학에서의 발견이 물리지질학이라는 저차원의 설명 재조직을 유발하도록 하여 후자 영역으로 하여금 개념상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 사례라고 보고, “이것은 일단 인문학자와 과학자 간에 쌍방향 소통이 정말 일어나면, 문학과 인지 신경과학자가 제출한 예상들에서 발견되는 모순들은 인지 신경과학을 수정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준다”(Slingerland and Collard, in press: 21-22)고 말한다. 이런 점은 통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상위’ 학문과 ‘하위’ 학문 간에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통섭과 간분과성 간에 양립불가의 관계만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이처럼 ‘고위’ 학문과 ‘하위’ 학문 간의 관계 맺기가 꼭 간분과성의 관점에서만 시도되어야 하는지, 학제적 연구를 넘어서는 연구 방식도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통섭의 방식까지 넘어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초분과성(transdisciplinarity)의 기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바사라브 니콜레스쿠에 따르면 초분과성은 다분과성(multidisciplinarity), 간분과성(interdisciplinarity)과 구분되는 학문 관계 맺기 전략이다. “다분과성은 하나의 분과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분과에서 연구주제를 다루며,” “분과의 경계들을

지나가지만 그 목적은 분과 연구의 틀 안에 남아 있다.” 다른 한편 간분과성은 “하나의 분과에서 다른 분과로 방법들을 이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 간분과성도 다분과성처럼 그 목적이 그대로 분과 연구의 틀 안에 남은 채로 분과들의 경계들을 지나간다. 간분과성은 양자 우주론과 카오스 이론처럼 새로운 분과들을 생성할 수도 있다.” 끝으로 “초분과성은 분과들 사이에 있는 것, 상이한 분과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분과들을 넘어서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의 목적은 현 세계의 이해이며, 그것이 의무로 삼는 하나의 일은 지식의 통합이다”(Nicolescu, 2006: 143-44. 강조는 원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초분과성은 다분과성, 간분과성과는 달리 ‘분과들 너머’에 대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맥그레거와 볼크만에 따르면, 간분과성은 “분과들을 끌어 모아도 분과들 간의 경계와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없다”(McGregor and Volckmann, 2010). 반면에 초분과성은 분과들 간의 경계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근거한다.

니콜레스쿠는 그와 마찬가지로 초분과성을 지향하면서도 초분과적 연구의 목표를 ‘공동 문제 해결’에 두는 입장에 대해 비판하며, 분과들 간의 경계는 후자들처럼 “지표면 위의 나라들, 대륙들, 대양들 간의 경계들”로 볼 것이 아니라 “은하들, 태양계들, 별들, 행성들 간의 분리”로 이해하고, 분과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분과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를 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공허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허’가 “비가시적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텅 빈 게 아니”(Nicolescu, 2006: 144)라는 것이다. 이 공허가 있기 때문에 분과들 간에 또는 너머에, 나중에 보겠지만 ‘포함된 중간’ 또는 ‘은폐된 제3자’가 작용할 수 있다.

초분과성 기획에는 ‘현실 차원들’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니콜레스쿠는 ‘현실’(Reality)을 “우리의 경험, 표상, 묘사, 이미지, 그리고 수학적 공식들에도 저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현실은 ‘존재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실재’(the Real)와는 달리 우리의 경험에서 만나는 저항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니콜레스쿠에게서 ‘현실 차원’은 특정 법칙 아래 있는 불변하는 체계 일습이다. 즉 “양자적 실체들은 양자 법칙에 종속되고, 이 법칙은 거시물리적 세계의 법칙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하나의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넘어갈 때 적용 가능한 법칙들에서 단절이 있고, 근본 개념들(인과성 등)에서 단절이 있으면

두 현실은 상이하다”는 말이다. 각 현실 차원은 그래서 나름의 시공간을 갖는다. 예컨대 고전적 현실 개념이 4차원 시공간(공간 세 차원과 시간 한 차원)을 갖는다면 양자물리학의 현실 개념에는 4보다 큰 수의 차원들을 지닌 시공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상이한 현실 차원들 사이에는 위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현실 차원은 모든 다른 차원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갖기”(Nicolescu, 2006: 147) 때문이다. 니콜레스쿠가 제안하는 초분과적 기획은 이렇게 볼 때 통섭 개념과는 달리 위계적이지도 환원적이지도 않은 셈이다.

니콜레스쿠는 상이한 두 차원들 간의 그리고 모든 차원들 너머의 지대는 우리의 경험들, 표상들, 묘사들, 이미지들, 그리고 수학기초들에 대한 ‘비저항 지대’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지대가 지닌 위상학적 거리는 유한하지만 그렇다고 “유한한 거리가 유한한 지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직선의 한 선분이란 이미지를 생각해보라. 그 선분은 무한한 수의 점들을 포함한다. 같은 식으로 유한한 위상학적 거리는 무한한 수의 현실 차원들을 가질 수 있다”(Nicolescu, 2006: 147-48). 비저항의 지대는 ‘성스러운 것’이다. 이때 성스럽다는 것은 어떤 합리화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의 현실 차원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스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이 된다.

니콜레스쿠가 말하는 초분과성에는 대상과 주체, 은폐된 제3자라는 세 요인이 관여하며, 현실 차원들과 비저항 지대의 통일체는 초분과적 대상을, 이들 차원과 지대를 인지하는 지각의 상이한 차원들과 지각에 따라 생기는 비-저항 지대의 통일체는 초분과적 주체를, 그리고 비-저항 지대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 항인 제3자를 구성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제3자인데, 니콜레스쿠에 따르면 그것은 초분과적 주체와 초분과적 대상이 서로 차이를 유지하면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포함된 중간’이다(Nicolescu, 2006: 148). 이 중간, 제3자는 상호배제적인 모순들(A이자 동시에 비-A인 제3의 T)을 가능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동일성과 비-모순성, 배제된 중간을 공리로 하는 고전적 논리학과는 다른, 모순 현상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간 또는 제3자는 이때 고전적 논리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위치가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단일한 현실 차원에 머문다면 모든 것은 두 모순적 요소들 간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제3의 역할, T-상태의 역할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통합되어 있고,

모순적인 것 같은 것이 비모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에서 행사된다”(Nicolescu, 2006: 151).

학문들의 관계 맺기에서 이 중간 개념이 중요한 것은 학문들의 비환원적 통합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니콜레스쿠에 따르면 초분과성은 세 개의 공리로 이루어진다. 그 첫째 공리는 “자연에는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는 현실의 상이한 차원들과 그에 상응하는 지각의 상이한 차원들이 있다”라는 ‘존재론적 공리’고, 둘째는 “한 차원의 현실에서 다른 차원으로서의 통과는 포함된 제3자의 논리에 의해 보장된다”는 ‘논리적 공리’며, 세 번째는 “전체 현실 또는 지각 차원들의 구조는 복잡 구조다”, 즉 “각 차원은 모든 차원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Nicolescu, 2006: 146)는 ‘복잡성의 공리’다. 포함된 제3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함된 중간 논리는 통합과정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 또는 지각의 두 상이한 차원들을 가로질러 사유에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속에서도 우주의 일관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게 해준다”(Nicolescu, 2006: 152)는 점 때문이다. 포함된 중간은 현실과 지각의 모든 차원들을 가로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초분과성의 존재론적 공리와 관련될 뿐 아니라, 어떤 현실 또는 지각 차원도 다른 모든 현실 및 지각 차원의 존재를 전제하여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복잡성 공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리하여 “존재론적, 논리적, 복잡성 공리들이 결합하여 일으키는 작용은 가치들을 만들어낸다...초분과적 가치들은 객관적이지도 주관적이지도 않다. 그것들은 초분과적 대상의 주관적 객관성과 초분과적 주체의 객관적 주관성의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숨겨진 제3자로부터 나온다”(Nicolescu, 2006: 154).<sup>9)</sup>

니콜라스쿠의 초분과성 기획은 이렇게 볼 때 학문 간 관계 맺기에서 새로운 모델

9) 이 제3자는 심광현이 말하는 프랙탈 공간 개념과도 상통하는 듯하다. “프랙탈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처럼 텅 빈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주하면서 스스로 생성되는 공간이다. 또 패치워크 같은 비정형 조각들의 모음이라고 할 리만 공간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그 사이를 주파하는 자기-조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기 복제와 반복이라는 특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프랙탈이 자기-조직하는 생태계의 생성원리이자 작동원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 끊임없이 주름 접기와 퍼기를 반복하면서 자기 복제를 수행하고 연속된 변주를 통한 비정형 자기 조직화의 과정이 바로 프랙탈한 것이다”(심광현, 2005: 29).

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윌슨이 말한 어느 한 분과로의 통합이라는 환원적 통섭도, 기존의 분과는 그대로 둔 채 '외교적으로' 상이한 학문들이 라운드테이블에 모여 앉아있는 '무식한 자들의 모임'도 아니다. 슬링거랜드가 말하는 '제2의 물결' 통섭의 경우 초분과성 기획과 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환원주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초분과성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다. 초분과성은 복잡성 개념을 수용하며, 따라서 '보편적 상호의존'의 원칙을 따른다. "보편적 상호의존의 원칙은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로 가능한 단순성, 현실의 모든 차원 간 상호작용의 단순성을 포괄한다. 이 단순성은 수학적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징적 언어에 의해서만 포획될 수 있을 뿐이다. 수학적 언어가 분석적 마음에만 말을 건다면, 상징적 언어는 생각들, 느낌들, 신체를 지닌 인간 존재의 총체성에 말을 건다"(Nicolescu, 2006: 153-54).<sup>10)</sup>

니콜레스쿠가 제출하는 초분과성 기획은 기존의 간분과성, 다분과성 기획과도 다르지만 윌슨, 슬링거랜드가 제출한 통섭 제안과는 다르다. 그것의 한 공리로 작용하는 복잡성 개념은 총체성에 속한 어떤 개별 차원도 다른 모든 차원들과 동시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도록 함으로써 인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아니 사실은 세계 이해의 오랜 원칙으로 수용되어온 '보편적 상호의존' 시각을 취하게 함으로써 다른 통섭 이론이 지닌 환원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초분과성 기획은 또한 통섭 제안을 거부해온 전통적인 인문학의 태도와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다. 인문학은 학문 간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간분과성 기획인 학제적 연구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학제적 연구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초분과 기획은 그 존재론적, 논리적, 복잡성 공리를 통해 개별 분과로 하여금 "현실의 모든 차원 간 상호작용의 단순성" 즉 '보편적 상호의존'을 외면하지

10) 니콜레스쿠의 이 말은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수학적 언어와 상징적 언어를 서로 너무 다른 것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분석적 마음에만 말을 건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수학에서도 선형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칸트의 관점, 즉 수학적 언어도 '인간 존재의 총체성'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니콜레스쿠가 강조하는 바는 '인간 존재의 총체성', 즉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로 가능한 단순성'을 포괄하는 능력이다. 물론 이때 이 총체성, 단순성은 언제나 이미 복잡성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않도록 한다. 물론 초분과성의 관점이 개별 분과학문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대로 “분과들 사이에 있는 것, 상이한 분과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분과들을 넘어서 있는 것과 관계를 맺는다”(Nicolescu, 2006: 143)면 초분과성은 언제나 이미 분과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함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니콜레스쿠는 그래서 “(다분과성과 간분과성을 포함한) 분과성과 초분과성 간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고 생산적 상보성이 있다”(Nicolescu, 2006: 144)고 하고, 맥그레거와 볼크만은 “초분과성은 분과적, 간분과적 작업에 대한 대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현존하는 학문적 실천에 대한 보완이 되려고 한다”(McGregor and Volckmann, 2010)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통섭에 대한 에드워드 월슨의 관점과 이 개념을 처음 제출한 휴얼의 관점을 비교하며 후자를 중시하는 심광현의 통섭 논의가 그것이다. 심광현에 따르면 휴얼에게 통섭 즉 ‘consilience’는 ‘jumping together’로서 ‘더불어 넘나들’의 뜻을 가지며, 오늘 학문 간 통섭을 꾀할 때에도 이런 이해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통섭 개념이 “오늘의 복잡계 과학의 관점에도 더 부합한다”(심광현, 2009: 206)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는 “복잡계 과학이야말로 ... 이질적인 계열들의 복합적인 뒤섞임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복잡한 상호과정과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경험을 촉진하는 창발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심광현이 이에 따라서 제안하는 학문 간 관계 맺기의 모습은 ‘T’자형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학문 분과 또는 예술 장르 간의 ‘원무’다. 그는 마티스의 〈원무〉(1905)에 나오는 손을 서로 맞잡고 춤을 추는 인간 군상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도약하는 이미지”(심광현, 2009: 209)라며, 통섭도 각 학문 분야가 자신의 분과적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두 팔을 벌려” 다른 분과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때 “기존의 학문 분야나 전공은 일종의 노드(node)에 해당하며 학문 간 연결망은 링크(link)에 해당”하고, “여러 노드들을 링크로 연결하게 되면 ‘무작위 네트워크’ 또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심광현, 2009: 207). 니콜레스쿠의 통섭 기획 역시 “분과성과 초분과성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고 생산적 상보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학문 간의 관계 맺기를 상이한 학문들이 ‘T’자형으로 원무를 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초분과성의 기획이 분과성,

간분과성, 다분과성과는 다른 점은 학문들이 관계를 맺을 때 한편으로는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유를 누림을 인정하지만 각 분과는 이미 다른 분과들과 함께 성립해있다는 점에 의해 그 위상이 이미 바뀐 것으로도 이해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성의 공리에 따라 개별분과들은 이미 학문들 분과의 총체성 체계 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분과성이 '분과들 너머'라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겠다. 인문학 분야에서 이런 '분과들 너머'의 시각을 제출한 것이 오늘날 '문화연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식생산 방식이 아닐까 한다.

#### 4. 문화연구, 복잡성 연구, 초분과성

'문화연구'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식생산의 한 패러다임이다. 퓨어리와 맨스필드가 지적하듯 "문화연구는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기호학, 맑스주의, 문학연구, 영화연구, 철학 등 다양한 학문들에서 기원한다"(Fuery and Mansfield, 2000: 22). 기원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은 안정적인 분과 기반이 없다는 말로서, 문화연구가 처음 버밍엄 대학 현대문화연구소(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CCCS)에서 학위과정으로 도입되었을 때 학위논문을 써야했던 학생들이 서지 작성에 애를 먹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 같다.<sup>11)</sup> 문화연구는 또 상이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이론적 실천적 지형에서 다양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영어 표기 'cultural studies'의 복수 형태가 보여주듯이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문화연구는 다중적 담론들을 갖고 있고 다수의 상이한 역사들을 갖는다... 그것은 많은 상이한 종류의 작업을 포괄했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정한 형성물들의 집합이었다. 그것은 따옴표를 붙여야만 하는 '중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많은 궤적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상이한 궤적들을 갖고 있었고 갖고 있다"(Hall,

11) 스투어트 홀에 따르면 서지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Nelson, Treichler and Grossberg, 1992: 2에서 인용).

1992: 278). 이런 점은 문화연구가 기존의 어떤 분과학문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했고, 자신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갖지 못했다는 말도 된다.<sup>12)</sup> 문화연구는 이 결과 ‘반분과적’(anti-disciplinary), ‘간분과적’, ‘분과횡단적’(cross-disciplinary), 또는 ‘초분과적’ 지식생산 패러다임이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여기서 문화연구가 ‘반분과적’이라 함은 기존의 학문 분과 틀에 안주함을 거부한다는 말이며, ‘간분과적’이라 함은 둘 이상 학문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분과횡단적’이라 함은 ‘다분과적’인 것과 같이 동시에 여러 학문들을 가로지르는 식으로 지식을 생산한다는 말이고, ‘초분과적’이라 함은 기존의 학문 분과들을 넘어서서 지식생산을 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처럼 분과 틀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려 하거나 동요시키려는 경향이 문화연구에 나타난 것은 문화연구가 20세기 중반의 지배적 지식생산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지적 기획이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넬슨에 따르면 문화연구는 “유령 같은 분과”(ghostly discipline)며, 또 그런 식으로 남는 것이 좋다. 그 경계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내용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반분과적인 것이 문화연구의 특징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문화연구가 “연구의 대상을 쪼개서 개별 분과들에 배타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 학문 분과들이 지식 영역을 분할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학술 작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한다”(Nelson, 1996: 277)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로버트 리에 따르면 문화연구의 이런 태도는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된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분리, 사회과학들 내부의 분할 구도에 대한 탈중심화 및 불안정화”에 해당한다.<sup>13)</sup> 지배적 지식생산 구도의 이 탈중심화, 불안정화는 당시 자유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자본주의 미국 헤게모니 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이었다. 배

12) 문화연구가 지금까지도 안정적인 학과 기반을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는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1960년대부터 ‘현대문화연구소’(CCC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에 문화연구학과로 독립했지만 학과로서의 생존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부 수준에서 ‘문화연구’의 이름을 단 학과는 어느 대학에도 없으며 대학원 수준의 협동과정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에도 ‘문화연구’ 이름을 붙인 곳은 한군데(중앙대)밖에 없다.

13) Lee, 2004: 10. 리의 글(Lee 2004)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피디에프 파일의 쪽수로 표시한다. <http://www.cultural-science.org/FeastPapers2008/RichardLeeBp.pdf>.

트남전쟁, 제3세계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사회참여, 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학생운동 등이 이런 도전을 구현하거나 실천한 요인 또는 세력이라고 하겠는데 리는 이런 도전이 “역사와 권력을 사회방정식 외부에서 쓴 19세기로부터 물려받은 평형, 합의 모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며, 지식생산에서 이런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인문학에서는 ‘문화연구’, 과학 분야에서는 ‘복잡성 연구’라고 지목한다(Lee, 2004: 6).

위에서 살펴본 통섭과 초분과성 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연구’가 ‘복잡성 연구’와 서로 비슷한 시점에 등장한 것이 중요하다. 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분리, 사회과학들 내부의 분할 구도의 탈중심화가 문화연구에 핵심적이라 하면서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근대 세계에서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조직하는 분과 구조의 인식론적 기초 즉 과학에서의 ‘진리’와 보편성의 결합이 각 방면으로부터 심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본다. 진리와 보편성 개념의 결합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 것은 “평형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인과성을 실험적 복제와 가설의 시험에 적합한 선행 조건과 후행 사건의 일관된 조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의 이동을 야기한 복잡성 과학이다. “카오스 안의 질서(이상한 끌개들), 카오스로부터의 질서(자기-조직화, 분산구조들), 그리고 비정수 차원들을 드러내는 병적 함수(pathological functions)와 자연적 형태들의 시각적 표상(프랙탈 기하학)” 등 복잡성 현상은 뉴턴의 가역적 물리학이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운동의 비가역성을 보여주며, “고전적 과학의 전제들에 대한 재평가를 암묵적으로 요청하고 연구의 대상들, 분석의 방법들, 그리고 오랫동안 ‘과학적’ 실천을 구성한다고 당연시된 탐구의 목적에 대한 재개념화”(Lee, 2004: 10-11)를 요청한다.

문화연구가 다루는 대상들, 현상들, ‘현실 차원들’(니콜레스쿠)은 물론 ‘복잡성 연구’가 다루는 것과 같은 엄밀 과학에 속하는 현상들은 아니다. 이상한 끌개들, 자기-조직화, 분산구조, 프랙탈 현상 등 복잡성 연구 또는 과학이 다루는 현실 차원들은 주로 자연 현상이며, 전통적인 근대적 분과학문 체제의 견지에서 보면 진리와 사실의 문제를 규명하는 ‘과학’의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문화연구는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의 행위와 창조성, 주체성의 문제 등 인간적 가치와 결부된 문제를 중시하며, 그런 점에서 인문학적 기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문제를 진리-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과학이, 후자는 인문학이 맡도록

한 것이 근대적 지식생산의 기본 구도였다면, 가치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은 문화연구가 지식생산의 근대적 분할 구도에서 인문학에 속함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은 물론 문화연구와 복잡성 연구가 등장한 것 자체가 근대적 지식생산 구도를 동요시킨 지적 변혁에 해당한다는 정작 중요한 점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문화연구와 복잡성 연구가 등장한 시점을 역사적으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보면 1950년대 중반 영국에서 문화연구 작업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근대적 지식구도에서 우위를 점한 학문의 ‘과학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개입이었음이 분명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절정에 오른 이 시기 학문적 지식은 자연과학 우위의 3분구도 하에 놓여 있었다고 봐야 한다. 지식의 구조가 근대 초부터 서로 분리되어온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학의 세 분야로 크게 삼분된 가운데 자연과학이 학문의 모델로 작용하며 사회과학까지도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다. 문화연구의 등장은 이런 지식생산 구도에서 그동안 자신의 연구방식이 과학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내세워온 법칙정립적인 사회과학의 주장을 비판하며 문화적 사회적 현상의 이해에서 ‘가치’와 ‘해석’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sup>15)</sup> 문화연구는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태도를 드러내는 학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연구가 인문학적인 것만은 물론 아니다. 문화연구는 인문학에서 출발했지만 인문학을 근거에서 뒤흔든 지적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문화연구는 문학비평과 신좌파라는 두 상이한 조류가 결합한 지적 기획이기도 했다. 20세기 중반까지 문학비평은 영국에서 특이한 지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지식 영역에서는 외면당하던 ‘총체성’ 개념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에드먼드

14) 오늘 지식인 문화를 양분하는 두 흐름을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에서 찾고 있는 지적의 관점을 참고할 것.

15) ‘해석’과 ‘가치’와 짝을 이루는 것은 둘 다 정신의 작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과학적 연구는 반면에 ‘사실’과 ‘설명’의 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빌렘 플루서에 따르면 자연의 사실은 설명될 수 있는 반면에 정신은 해석될 수 있다(플루서, 2001: 11-15).

16) 페리 앤더슨은 1960년대 말 영국 문화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면서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외

버크, 새뮤얼 콜리지, 매튜 아놀드, 월터 페이터, F. R. 리비스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학비평 전통은 그래서 1960년대에 이르러 당대 사회의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일한 지적 전통이었으나 다른 한편 “생각하고 말한 가장 좋은 것”(아놀드)을 추구하며 노동자계급의 대중문화는 저질로 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비평 전통에서 성장했으면서도 그것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엘리트주의를 배척하고 노동자계급 문화를 비평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텍스트’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문학비평과는 다른 진보적 비평의 전망을 연 것이 리처드 호거트, E. P. 톰슨, 레이먼드 윌리엄스 등 문화연구의 선구자들이다. 한 예로 윌리엄스는 ‘문화는 평범하다’는 테제를 제출하며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를 구분하는 문학비평 전통의 엘리트주의를 뒤엎어버린다(Williams, 1989). 문화연구는 보수적 문학비평 전통에 대해서만 반발한 것이 아니었다. 대중문화를 문학작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텍스트로 봄으로써 전통적 인문학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아울러 문화 분석을 사회 이해의 핵심 과제로 삼음으로써 전통 좌파의 경제결정론적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sup>17)</sup> 경제결정론이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보고 문화의 진실을 경제적 하부구조에서 찾으려 했다면 문화연구는 문화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은 그 나름의 자율성을 지닌 기호적 실천을 우회해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Hall, 1992: 283-84).<sup>18)</sup>

---

국 출신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다른 지식생산 분야와는 달리 문학비평에서만 예외적으로 F. R. 리비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인들이 주도했고, 문학비평만이 총체성 개념을 보존하며 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한 바 있다(Anderson 1969).

- 17) 문화연구는 일부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맑스주의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홀에 따르면 문화연구는 ‘맑스주의와 씨름’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는 문화연구가 맑스주의가 중시하는 계급 문제를 중대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는 말이다. 문화연구는 한편으로 일부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화에서의 계급투쟁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중심주의에 대한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로부터의 문제제기 까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Hall: 279-83). 이런 점은 문화연구가 끊임없이 분과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고, 넘어야 함을 보여준다.
- 18) 문화연구가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 개념을 수용한 것은 앤더슨이 영국 지성계에서 문학비평이 유일하게 간직했다고 하는 총체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었다는 말도 된다. 윌리엄스의 경우 ‘문화는 평범하다’는 테제를 통해 문학비평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했지만 문화를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체성’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영

로버트 리가 버밍엄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CCCS)에서 이루어진 문화연구가 “일련의 학제적 영역들의 탈중심화, 탈안정화”(Lee, 2004: 10)였다고 보는 것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 “학제적 영역들의 탈중심화, 탈안정화” 효과를 냈다는 것은 문화연구가 분과학문들 간의 학제적 연구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들 학제적 연구들마저 다시 넘어서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화연구가 정치경제학, 질적 방법론, 기호학, 담론분석, 서사이론 등의 방법론은 물론이고 맑스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보면 문화연구의 분과적 정체성이 동요하고 있음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문화연구가 끊임없이 분과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연구가 근대적 지식생산 양식에 새로운 동요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근대사회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근대적 질서는 자유주의가 지배해왔다는 점에서, 문화연구는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질서, 객관성, 가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질서는 “경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진리’의 영역인 과학을 인상주의적이고 혼돈스런 ‘가치들’의 영역과 대립”시키는 식으로 지식을 생산하도록 했고, 보편적인 과학의 기준에 의해 사회를 관리함에 따라서 인문학을 제외하고는 과학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사실들을 다루도록 했다. 사회과학이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진보’를 위한 ‘과학적인’ 또는 비-가치지향적인 정책 수립 과정”(Lee, 2004: 4)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연구가 당대 지식생산에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지식생산의 이런 자유주의에 대해 도전했기 때문인데, 이 도전은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가 새롭게 결합한 모습으로서 ‘새롭다’함은 이때 문화연구가 한편으로는 문학비평의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야한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극복하고자 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문화연구의 등장을 근대적 지식생산을 지배하던

---

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CCCS에서는 알튀세르의 맑스주의 해석이 수용됨으로써 ‘총체성’보다는 ‘중층결정’의 관점이 채택되었다. ‘중층결정’은 하나의 전체는 여러 심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심급은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을 일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의 구성을 복잡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체를 복잡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총체성 개념에서는 이런 복잡성 개념이 나오기 어렵다.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봐야 하겠지만 과학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연구가 등장한 시기에 과학 분야에서 복잡성 연구가 등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니콜레스쿠가 말하듯이 복잡성의 공리에 따르면 “각 차원은 모든 차원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Nicolescu, 2006: 146). 통섭, 특히 월슨 식의 환원주의적 통섭 개념에 따르면 어떤 차원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복잡성의 공리에서 그 차원은 결코 환원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문화적 현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기존의 사회과학이 했던 것처럼 비-가치지향적이고 중립적인 과정에 따라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다’(사실들의 영역과 과학의 목적)와 ‘~여야 한다’(가치들의 영역과 인문학의 과제)의 재-융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Lee, 2004: 13). 리는 “복잡성 연구에서 우발성, 맥락-의존성, 체계 창조성, 그리고 다중적 중복적 시공간 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관심사와 놀라운 유사성을 띠며, 외재주의와 연관된 ‘객관성’은 역사적 사회 체계들을 포함한 새로운 복잡계 모델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심각하게 의문에 붙여지고 있다”(Lee, 2004: 12)고 한다. 문화연구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며 사실과 가치들을 융합하는 것은 복잡계가 지닌 이런 피드백 메커니즘을 사회현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연구를 위에서 살펴본 ‘초분과성’ 기획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문화연구가 초분과성 기획에 속한다는 것은 문화연구가 ‘분과들 너머’라는 시야를 갖고 지식생산을 한다는 말이다. 초분과성 기획에서 개별 분과들은 각자 자율성을 갖지만 ‘복잡성의 공리’에 따라서 각 개별 분과는 함께 존재하는 다른 모든 분과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이한 분과들의 관계는 “은하들, 태양계들, 별들, 행성들 간의” 그것처럼 분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불연속성은 공허이긴 하되 “결코 텅 빈 게” 아니라 “비가시적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찬”(Nicolescu, 2006: 144) 상태, 즉 포함된 중간 또는 은폐된 제3자가 작용할 수 있는 지대라고 봐야 한다. 문화연구가 사실들(‘이다’)과 가치들(‘~여야 한다’)의 융합이라면, 이는 초분과성의 용어로 다시 쓰면 대상의 현실 차원들과 지각과 주체의 현실 차원들이 연결되는 장이 된다는 말이다. 니콜레스쿠에 따르면 문화는 종교와 더불어 현실과 지각의 여러 차원들과 ‘숨겨진

제3자'의 비저항 지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테크노과학과 다르다. “테크노과학이 전적으로 대상의 지대에 위치해 있다면, 문화와 종교는 대상, 주체, 그리고 제3자의 세 항 전체에 걸쳐 있다. 이런 비대칭은 양자의 대화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이 대화는 테크노과학의 문화가 진정한 문화가 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것은 숨겨진 제3자가 현실의 모든 차원들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Nicolescu, 2006: 157).<sup>19)</sup> 니콜레스쿠가 말하는 테크노과학도 복잡성 과학의 견지에서 보면 문화와 다를 바 없이 진정한 문화에 속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문화가 초분과성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 5. 문화연구 대 ‘제3의 문화’ 대답을 넘어서

지금까지 문화연구가 20세기 중반 이후 자신과 거의 동시에 출현한 복잡성 연구와 함께 어떻게 기존의 근대적 지식생산 구도를 동요시키고 학문 간 비환원적 관계 맺기로서의 초분과성 기획의 예로 작동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문화연구는 ‘분과들 너머’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식생산을 어느 한 분과로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화연구가 출현 반세기가 넘도록 마땅한 학과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지식 대상을 갖지 못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분과를 지향하는 대신 지식생산의 지배적 구도 다시 말해 오늘날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지식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 ‘숨겨진 제3자’가 현실의 모든 차원들을 가로지른다는 니콜레스쿠의 이 말은 모든 것을 이 제3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는 점에서 또 다른 환원주의적 주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니콜레스쿠에게서 ‘숨겨진 제3자’는 현실 차원들 간의 비저항지대, 각각의 상이한 차원들 간의 비저항지대, 그리고 주체와 객체 간의 비저항지대에서 상이한 항들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본질을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숨겨진 제3자’의 작용이 이처럼 상이한 항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면 이 제3자를 환원 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문화연구는 '제3의 문화'와는 대비를 이룬다. 브로크만이 이미 기정 사실이 되었다고 말하는 제3의 문화는 앞서 살펴본 대로 과학 중심인데 이는 진화론, 양자물리학, 우주론, 인지과학, 신경생리학,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카오스이론, 체계이론, 복잡성 과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슬라보이 지젝에 따르면 이들 과학 분야의 성과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는 제3의 문화와 탈구조주의적-해체주의적 문화연구 사이에는 오늘 어느 쪽이 보편적인 '공적 지식인'의 지위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지적 헤게모니 투쟁"(Zizek, 2002: 19)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야할는지 모른다. '제3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지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제3의 문화와 관련된 저술들의 대중적 호소력은 문화연구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문화연구의 경우 TV나 영화, 컴퓨터게임, 하위문화 등 대중문화 현상을 자주 다룬다는 점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연구 서적들의 판매량과 '과학혁명' 중심의 제3의 문화 서적들의 판매량은 후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크다. 다른 한편 지배적 지식생산 제도와와의 관계에서도 제3의 문화는 문화연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한다. 문화연구의 경우 (설령 스스로 원한다고 해도) 오늘 공식 지식생산 제도의 핵심인 대학에서 아직 제대로 발을 붙이고 있지 못하고 "현존 학계에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물질"처럼 취급되고 있다면, 제3의 문화를 일으키는 인지과학 등 과학 분야들은 "지반을 재탈환하고 이 [이물질]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학술적 지식 — 전문적, 합리적, 경험적, 문제-해결적 이론 — 의 공인된 활동"(Zizek, 2002: 30-31)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지젝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제3의 문화를 대변하는 과학적 입장을 '인지주의'로 부르면서 "인지주의와 문화연구 간의 구분은 단순히 두 학설, 두 이론적 접근 간의 구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두 개의 전적으로 다른 지식 양식들 또는 실천들 간의 좀 더 근본적인 구분"(Zizek, 2002: 31)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3의 문화가 문화연구를 제치고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한다는 것은 '학문적' 지식과 '비학문적' 지식이 구분되는 가운데 전자의 지적 우위가 관철된다는 말이며, 일견 문화연구가 복잡성 연구와 더불어 문제시한 근대적 지식생산의 구도가 되살아난 셈이 된다. 다시 말해 1960년대에 일어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거대한 도전, 자유주의 질서의 관리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각종 소음이 신자유주의 질서

가 그 절정에 다다른 이제는 가라앉아 다시 과거의 질서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것이다. 지젝에 따르면 인지주의 비판가들은 문화연구를 “분파적이고 스탈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당 노선 문제가 개방적인 경험적 연구와 합리적 논증을 지배하는 웃기는 준-신학적인 종파적 투쟁”에 속한다고 보고 반면에 “자신들을 이런 밀폐되고 고루한 분위기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제 1960년대의 “반-학문기득권적 논리에서 멀리 벗어난” 듯이 군다는 것이다. 지젝의 인지주의 혹은 제3의 문화가 이처럼 자신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정확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에서 자유롭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화연구가 애초에 강하게 내비친 반분과적 태도와 결별하고 오히려 “제도학문적 대학 담론을 지적 자유의 진정한 현장”(Zizek, 2002: 32)으로 여긴다는 말로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학문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다시 굴복한 꼴이다.

하지만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를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비판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질문은 남아있다. 지젝은 사실 문화연구에 대해서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그것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기본 동질성을 건드리지 않고 남겨놓는 문화적 차이들을 위해 싸우고”(Zizek, 2008: 261)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화연구에 대한 이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지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문화’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물론 후자가 더 큰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래에서 나는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사이의 대립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두 기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젝의 관점은 문제점이 없는지 따져보고,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사이에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본 다음, 제3의 문화와의 대립을 넘어선 문화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젝이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두 지적 기획이 모두 학문제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때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젝은 문화연구는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반-학문기득권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학계에서 곧잘 ‘이물질’처럼 여겨지곤 하긴 해도 여전히 공식 학문제도 안에 기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미국에서처럼 일부 문화연구자들이 보여주는 ‘급진적’ 모습은 노동자계급 문화와의 연계는 별로 없는 “학계의 급진적 유행”일 뿐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문화연구 영역은 오늘의 세계적 지배관계를 효과적으로 위협하기는커녕 그 관계의 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Zizek,

2002: 30)는 것이다. 지적의 이런 지적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문화연구가 학문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시사하는 것처럼 공식적 학문제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비판적 지식생산의 비판성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지적은 문화연구의 반-학문기득권적 경향을 제3의 문화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지적 자유'를 '제도학문적인 대학 담론'에서 찾는다는 이유로 제3의 문화를 신뢰하지 않는데, 이런 관점은 문화연구를 포함한 비판적 지식에 대해 지식생산 제도로부터 벗어날 것을, 무정부주의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식생산의 지배적 구도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즉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비판적 지식이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배체제를 비판하면서 그것의 작동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지배체제를 온존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기만 하는 '좋은 주체'는 물론이고, 체제를 거부하면서도 거기서 거리를 두며 그 작동 방식을 바꾸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나쁜 주체'에 의해서도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튀세르 학파의 폐쇠가 제안한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 전략일 것이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동일시, 다른 한편으로는 반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와 구분된다(Pêcheux, 1982: 158-59). 동일시는 '착한 주체'의 태도로서 이 주체는 자신에게 제시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거부해버리는 '나쁜 주체'와 달리 거기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존재다. 반동일시의 경우는 명백한 것만 말하는 좋은 주체가 '살아낸' 의미들을 되돌려주는 말썹꾸러기의 양식이다(McDonell, 1986: 39). 이들은 "'보편적 주체'가 '자기에게 생각하라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간격(거리 두기, 의심, 심문, 도전, 반발 등의)으로 구성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보편적 주체에 맞선다." '당신들이 말하는 석유위기', '당신네의 사회과학', '당신이 말하는 처녀 마리아'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 사람들이다(Pêcheux, 1982: 157). 동일시와 반동일시는 대립적이지만 서로 대칭을 이루며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폴 윌리스가 1970년대 영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나이' 학생들은 모범생들을 경멸하며 학교의 가르침을 일일이 거부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부모들처럼 노동자계급으로 성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이라고 하는 학교제도가 지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는 자신들이 경멸

하는 범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윌리스, 2004). 반면에 역동일시는 지배체제에 대해 개입하여 그것을 ‘타고 넘는’ 전략이다. 무노스에 따르면 “역동일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세 번째 양식으로 그런 구조 안에 동화되기를 선택하지도 그렇다고 엄격하게 그것에 대항하는 것도 아닌 양식이다. 차라리 역동일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타고 넘으며 작용하는 전략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압박에 굴복하거나(동일시, 동화) 피할 수 없는 그 세력권으로 벗어나려는(반동일시, 유포피아주의) 대신, 이 ‘타고 넘는 작용’은 문화적 논리를 내부에서 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Muñoz, 1999: 1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가 학문제도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 같은 지적의 지적은 오히려 그 자체가 변혁 전략을 결여한 것임을 보여주는 셈이 된다.<sup>20)</sup>

오늘 보편적 공적 지식인의 위상을 놓고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두 지적 기획을 대립적으로 보는 지적의 관점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자유주의적 지식생산의 틀을 동요시키며 등장한 문화연구가 오늘 제3 문화의 한 핵을 구성하는 복잡성 연구와 함께 등장했으며, 두 지적 기획이 기존의 지식 구조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본 로버트 리의 견해를 살펴본 바 있다. 리에 따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경계 허물기를 보여주는” 문화연구는 지식구조 위계의 하층부에 있다면, “우발성, 맥락-의존성, 체계 창조성”(Lee, 2004: 11, 12) 등을 강조하는 복잡성 연구는 그 상층부에 있으면서, 지식을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문화연구가 사회과학이 추구하던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생산에 ‘가치’나 ‘주체성’과 같은 인문학적 관점을 불어넣고, 인문학에는 인간 본성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복잡성 연구는 역사적 사회 체계도 복잡계의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보게 함으로써(Lee, 2004: 12) “‘이다’(사실의 영역과 과학의 목표)와 ‘~여야 한다’(가치의 영역과 인문학의 과제)의 재융합”(Lee, 2004: 13)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리는 이리하여 복잡성 연구는 문화연구가 지배적 지식생산 구도, 나아가서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해 역동일시의 전략으로 개입하여 그 구도

20) 역동일시 및 폐쇄를 포함한 알튀세르 학파에 대한 지적의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려면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1991) 참조.

와 질서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과학적’ 모델 위에 구축된 지식의 정당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존재론 자체가 변혁을 겪고 있다”(Lee, 2004: 12)는 사실이라 보고,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방향은 복잡성 연구가 보여주듯이 예컨대 가치 적재된 결정과 행동의 형태로 조그마한 동요에도 예민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Lee, 2004: 14)고 말한다. 문화연구와 복잡성 연구 또는 나아가서 제3의 문화 사이에 상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지적이 '탈구조주의적 해체주의적 문화연구'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시사되고 있듯이 문화연구가 이론적으로 탈구조주의 또는 해체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 이론 전통과 제3의 문화의 주된 이론적 전통에 속하는 진화론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간의 양립 또는 상호 보완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엘렌 스폴스키에 따르면 “다윈의 진화이론은 재현에 대한 탈구조주의적 비판과 의미심장하게 일치한다”(Spolsky, 2002: 43). 둘 다 형이상학적 관념론 또는 본질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스폴스키는 인간의 인지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상이한 복수의 인지 모듈에 의존해야 함에 따라 생기는 정보 구조들 간의 간극들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 경험과 기억에 바탕을 둔 추론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창의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인류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유전자 상속은 그 상속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스폴스키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인지적 진화론적 가정들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새로운 질문들을, 더 많은 역사적 연구를 요구하는 질문들을 제기한다고 본다(Spolsky, 2002: 46).

스폴스키에 따르면 “인간 두뇌의 진화 연구에서 나오는 가정들은 “탈-구조주의 사상과 전혀 불일치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상을 확장하며 풍부하게 만든다”(Spolsky, 2002: 47). 탈구조주의의 기본 입장의 하나는 언어가 외부 현실을 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소쉬르에 의해 지적된 바지만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의 효과로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지만 단어들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각 항의 가치가 다른 항들의 동시적 현존에서만 생겨나는 항들의 체계”(Saussure, 1959: 114)인 것이다. 소쉬르는 통상 구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자크 데리다와 같은 탈구조주의자도 ‘텍스트 바깥’에서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탈구조주의자들이 구조주의자들과 동일한 언어 및 재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후자가 구조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반면 전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소쉬르가 기호의 자의적 성격, 기호의 작동이 관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면, 탈구조주의자들은 “관습의 안정화하는 힘 자체도 해체될 수 있다”(Spolsky, 2002: 49)고 보고 급기야는 의미 결정의 불가능성, 재현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스폴스키는 이후에 탈구조주의 진영에서 이런 과격한 주장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만약 인간의 재현 체계가 직접적 현실에 대해 정말로 아무런 통로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진화와 적응에 대한 다윈적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나 다른 종들)이 자신들의 신체 외부 세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없을 것이고 재생산 등도 할 수 없을 것”(Spolsky, 2002: 51)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해체론적 주장의 절대성을 조정하며 그 주장의 ‘점차성’(gradience)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재현 체계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역설적이고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폴스키는 재현체계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녀가 “기표와 기의의 간극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체계로 하여금 새로운 맥락의 도전을 맞게 하고 새로운 결합과 새로운 의미로 낯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내장시킨다”(Spolsky, 2002: 52)고 보기 때문이다. 스폴스키가 볼 때 “체계는 꼭 전적으로 안정적이진 않다. 그것은 언제나 오용에, 즉 고의적인 수사적 납치나 비유에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런 취약함이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맥락에 걸쳐 반복 가능한 형태로 있어서 텍스트와 같은 재현 체계는 오용의 취약함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창조적 혁신을 허용하고 종이 결코 다함이 없는 두 가지 일, 즉 생존과 적응을 하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Spolsky, 2002: 53)인 것이다.

스폴스키가 말하듯이 재현체계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하다고 보고, 따라서 본질론에 근거하든 아니면 안정된 관습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든 구조화된 재현체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동시에 문제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창조적 소통의 자원으로 여기는 것이 탈구조주의라면, 탈구조주의자에게 구조 또

는 체계는 원래 그런 것,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그런 것일 뿐이다. 하지만 구조와 체계가 지금 당분간 '그런 것'으로 존립하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구조주의자 역시 언어와 같은 의미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역시 이 구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안에 불안정한 요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스폴스키는 이런 관점이 그 어느 것보다 다원적이라고 본다. 진화론자(다윈과 그 후예)와 해체론자(테리다 등)는 모두 “구조화 — 구조들의 생산(그리고 이것은 구조들의 이론들을 무한하게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를 특정한 환경 안에서 그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Spolsky, 2002: 56).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사이에 지척이 암시하듯 대립이 작용한다기보다는 로버트 리와 엘렌 스폴스키가 보여주듯 이렇게 상호간에 상동성과 상보성이 있다고 한다면 두 지적 기획을 초분과성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된 것으로 보고 나아가서 오늘 지배적인 지식생산을 그 내부에서 '타고 넘는' 역동일시 전략에 의해 동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사이에 꼭 상호보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척이 말하는 경쟁과 투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3의 문화가 오늘 갈수록 자본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거대복합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제도학문적 대학 담론'을 지적 자유의 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지적 기획이 기존의 지식생산에 대해 가하는 문제제기와 그 안에 담긴 대안적 지식생산의 가능성까지 무시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를 우리는 지척처럼 비판만 하고 말 기획이라기보다는 더 가꾸어 키워나가야 할 지적 자원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6. 결어

스노우가 '두 문화 분리'의 극복을 과제로 제출한 이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문화'가 등장했지만 이 문화의 경우 과학 중심적인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많은 인문학자들이 우려하듯, 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척이 암시하듯 인문학적 문화 또는 여기서 제시한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이 글에서 나는 양자 간의 관계를 대립으로 보는 관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문화연구와 제3의 문화의 대립보다는 상호 관계 맺기, 초분과적인 연계를 더 중시하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현존하는 지식생산 현장에서 학문의 분과들 또는 분야들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오늘 학문은 크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 분야에 속하는 학문들 내부에서는 다시 이론과 기술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브루노 라투르(2009)에 따르면 세 분야로의 학문 구분은 그동안 우리가 ‘근대인’으로 자처해오면서 ‘사실’과 ‘권력’, ‘담론’의 세계를 서로 구분하여 지식을 생산해온 결과다. 여기서 ‘사실’은 자연을, ‘권력’은 사회를, 그리고 ‘담론’은 인문학을 포함한 문화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텐데, 보다시피 이들 대상은 각기 오늘 학문이 삼분법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상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투르는 이 삼분법이 지식생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사실’과 ‘권력’과 ‘담론’이, 또는 ‘자연’과 ‘사회’와 ‘문화’가 분리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근대의 기본 구도(Constitution)는 한편으로는 정화와 분리의 원칙에 의해 사실과 권력과 담론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원칙은 가동되는 즉시 번역과 매개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키메라들, 준-대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생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문화 또는 학문의 삼분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학문 간 통섭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통섭이 환원적으로 작용할 경우 현존하는 학문들 가운데 소수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나머지는 도태당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문 간 융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이론적으로 환원주의적 통섭을 주장하는 것은 학문생태계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통섭은 불가하다고 하고, 기존 학문들을 온존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제적 연구 정도만 추진하면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살펴본 문화연구와 복잡성 연구의 문제의식을 모르쇠로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환원주의적 통섭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비환원주의적 통섭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한편으로는 분과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분과들 너머'로까지 나아가는 통섭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대로 비환원주의적 통섭 모델로서의 초분과성 기획이 성립될 수 있다면 학문 간 통섭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여전히 인류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지식 생산 구도를 온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복잡성 연구와 함께 1960년대에 등장하여 지배적인 지식생산 구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문화연구 기획이 유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화연구는 아직도 분과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여러 학문 분과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까다로운 면모 — 지젝이 말하듯이 '이물질'로서 — 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까다로움이야말로 문화연구가 제도권 학문 세계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 세계의 새로운 전화를 야기하는 불씨로 작용하는 자원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강내희(1998), “분과학문체계의 해체와 지식생산의 ‘절합적 통합’”,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문화과학사.
- 라투르, 브루노(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 리오타르, 장-프랑수아(1992),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환 외 역, 민음사.
- 브록크만, 존(1996), 《제3의 문화》, 김태규 역, 대영사.
- \_\_\_\_\_ (2006),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안인희 역, 동녘사이언스.
- 스노우, C. P.(1996), 《두 문화》, 오영환 역, 민음사.
- 심광현(2005), 《프랙탈》, 현실문화연구.
- \_\_\_\_\_ (2009),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 예술·학문·사회의 수평적 통섭을 위하여》, 문화과학사.
- 윌리스, 폴(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김찬호 역, 이매진.
- 윌슨, 에드워드(2005), 《통섭 —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 이남인(2009),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통섭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삼아”, 《학문 간 경계를 넘어: ‘통합적 학문연구’의 가능성과 전망(2)》(2009. 4. 23), 서울대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 이정모(2004),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바뀐다 ... 한국은 한발 뒤쳐져”, 《교수신문》(2004. 12. 06).
- 커즈와일, 레이(2007),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장시형 역, 김영사.
- 플루서, 빌렘(2001), 《코무니콜로지 —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Althusser, Louis (1990), *Philosophy and the Spontaneous Philosophy of the Scientists & Other Essays*, translated by Ben Brewster, James K. Kavanagh, Thomas E. Lewis, Grahame Lock, and Warren Montag, London & New York: Verso.
- Anderson, Perry (1968), “Components of the National Culture,” *New Left Review* I/50.
- Clayton, Jay (2002), “Convergence of the Two Cultures: A Geek’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74(4).
- Frank, David John and Jay Gabler (2006), *Reconstructing the University: Worldwide Shifts in Academia in the 20th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uery, Patrick and Nick Mansfield (2000),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Theory*,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Fuller, Steve (2001), “Strategies of Knowledge Integration,” in M. K. Tolba (ed.), *Our Fragile*

- World: Challenges,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xford: EOLSS Publishers (for UNESCO).
- Hall, Stuart (1992), "Legacies of Cultural Studies," in Lawrence Grossberg, Carey Nelson and Paula A.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 Katz, Jon (2000), *Geeks: How Two Lost Boys Rode the Internet out of Idaho*, New York: Villard.
- Leavis, F. R. (1962), *Two Cultures? The Significance of S. P. Snow's Richmond Lecture*, London: Chatto and Windus.
- Lee, Richard E. (2004), "Cultural Studies, Complexity Stud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0(1).
- McGregor, Sue L. T. and Russ Volckmann (2010), "Making the Transdisciplinary University a Reality," *Integral Leadership Review* X(2).
- McDonell, Diane (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New York: Basil Blackwell.
- Mulhall, Douglas (2002), *Our Molecular Future: How Nanotechnology, Robotics, Gene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Our World*,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Muñoz, José Esteban (1999), *Disidentifications: Queers of Color and the Performance of Politics: Cultural Studies of the America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elson, Carey (1996), "Always already cultural studies: academic conferences and a manifesto," in John Storey (ed.), *What Is Cultural Studies? A Reader*, London: Arnold.
- Nelson, Carey, Paula A. Treichler, and Lawrence Grossberg (1992),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in Lawrence Grossberg, Carey Nelson and Paula A.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 Nicolescu, Basarab (2006), "Transdisciplinarity: past, present and future" (<http://www.movingworldviews.net/Downloads/Papers/Nicolescu.pdf>).
- Pêcheux, Michel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 Saussure, Ferdinand de.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Wade Baskin*, New York: Philosophic Library.
- Slingerland, Edward (2008), "Good and Bad Reductionism: Acknowledging the Power of Culture," *Style* 42(2-3).
- Slingerland, Edward and Mark Collard, in press, "Introduction," in Slingerland and Collard (eds.), *Creating Consilience: Toward a Second Wav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faculty.arts.ubc.ca/eslingerland/pdfs/CreatingConsilience\\_Introduction\\_v12.pdf](http://faculty.arts.ubc.ca/eslingerland/pdfs/CreatingConsilience_Introduction_v12.pdf)).
- Spolsky, Ellen (2002), "Darwin and Derrida: Cognitive Literary Theory As a Species of Post-Structuralism," *Poetics Today* 23(1).

- Tooby, John, and Leda Cosmides (1992),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culture," in J. Barkow, L. Cosmides and J. Tooby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Raymond (1989), "Culture Is Ordinary," in R. Gable (ed.), *Resources of Hope: Culture, Democracy and Socialism*, London: Verso.
- Zizek, Slavoj (2002), "Cultural Studies versus the 'Third Culture',"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01(1).
- \_\_\_\_\_ (2008),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 Cultural Studies as a Transdisciplinary Project for Non-Reductionist Consilience among the Disciplines

Kang, Nae-hui\*

This paper starts with a critical view of the 'consilience discourse' that has recently appeared in the South Korean academia in the wake of Edward Wilson's proposal for consilience among the academic disciplines. Despite its wide circulation as a catchword for cooperative activities across the disciplines, the proposal prompted a growing backlash among humanists who became worried that it may result in reducing the humanities to the natural sciences. While sharing the humanists' concern, this paper argues that consilience among the academic disciplines is indispensable if we want to overcome the overall tendency of the humanities to disciplinary division — adding, however, the proviso that the consilience, in turn, must be non-reductionist.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Basarab Nicolescu's notion of 'transdisciplinarity' can provide a non-reductionist consilience model and that in the branch of the humanities, the British cultural studies tradition has been functioning as such a model. In that it sees cultural studies as a powerful candidate for a radical transdisciplinary project for non-reductionist consilience, this paper distinguishes itself from Slavoj Žižek's stance that remains blind to the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studies and the actually existing 'third culture.'

**Keywords:** Consilience among the Disciplines, Interdisciplinarity, Transdisciplinarity, Cultural Studies, Complexity Studies, the Third Culture, Disindetifica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Chung-Ang University